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말행복지유테타장

최근 부부 간 다툼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혼 소송 중에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남편 측 인사의 청부 살인을 요청한 충격적인 사안도 있고 이혼 소송을 냈다고 아내의 얼굴에 황금을 뿌려 대중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

국내 부부폭력에 대한 현황은 '여성 가족부'에 의해 3년 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조사 내용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발언대

출가·열반제일에 관심을

연관된,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린 다거나 목을 조르거나 흉기 등의 위협과 가해 등이 자행된 '신체적 폭력(7.3%)'과 '성학대(5.4%)', 그리고 '경제적 폭력(5.3%)'도 꽤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폭력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43.6%)와

부부간 폭력수위 심각해

좌절감을 배우자에게 화풀이

적개심 늘출 치유방안 필요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38.5%)에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78.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이라는 주제는 경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법구경>에 보면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 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경험이 피해자들에게 '적대감'으로 사무쳐 '원

한'으로 복수하게 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언급되고 있다.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병적 증상이 원인이라는 견해와 성격적 특성이라는 견해로 요약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심리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부부폭력이 왜 흉포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좌절 공격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환경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그 분풀이를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재정적인 문제, 실직, 질투심, 음주, 임신, 자녀문제,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갈등이 일어나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본다.

사회구조적 관점인 교환이론으로 보면 부부간의 폭력은 가족의 교환관계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데 돈수 등이 기대보다 작아서 또는 배우자의 배경이 기대보다 못해서 그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자

원으로 폭력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결국 과도한 소유를 부추기는 사회와 충족하지 못한 욕망을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투사하는 미성숙 사회구성원의 합작품이 폭력 흉포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부폭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가족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참에 <법구경>에 언급된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린'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해소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을 찾아 피해자를 회복시키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에 맺힌 원한이 상대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투사형 복수의 반복을 막기 위해 예방적 교육에 온 역량을 쏟았으면 한다.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멍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이상이라고 한다. 물리적 비용 없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사회적 정근(正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AI 생매장 살처분 다시 생각하자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살육의 연쇄고리는 끊어질 줄 모른다.

2월 25일 현재 조류독감의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565만3000마리가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람으로 치면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것도 산체로 묻혀서.

보다 못한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예방적 살처분의 무용(無用)과 생매장을 자행하는 원칙 없는 방역행정을 고집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조류독감과 살처분'을 주제로 2월 28일 개최한 교육 아사리 포럼에서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교육 아사리 원영 스님은 "생명존중의 태도가 일체 배제된 원칙 없고 불합리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우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를 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도 오염지역 500m 내에서의 선택적 살처분을 통해 생명의 죽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칙없는 행정에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공장식으로 사육된 가축이고, 이를 처분하는 인력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옥을 경험한다. 정말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생명의 무게를 예민하게 살피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유대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의 경험을 담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썼다. 우리에게도 예방적 살처분이지만 가족에게 생매장 구멍이 아우슈비츠,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종립대 국제 교류 폭넓은 성과 기대

불교계 각 대학들이 아시아 각국과 불교 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먼저 동국대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스리랑카의 켈라니아대학, 페라데니아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 또한 2월 12일 파키스탄 콰이드 이아즈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실 종립대학들은 불교권 국가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부터 다시 진행된 종립대학들의 교류협정이 2014년에 들어서며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종립대학들의 학술교류 협정은 불교 전통을 갖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 대학과 대승불교 전통의 우리 대학 간의 핵심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대학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학문의 교류는 문화의 교류를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호 관계는 정치·외교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교류로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 더 쉽게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화적인 공감대가 넓혀지면서 정치나 사회적 문제로 쉽게 풀려가는 모습은 과거 역사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에서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만만한 싱 인도총리와 만나 문화교류 등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도 여기에 포함됐다.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둔 양국의 교류는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로 각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종립대학들의 교류협정을 단순한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로 삼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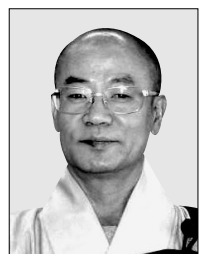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특별 수행 정진 주간으로



부처님은 계급차별과 남녀차이를 부정한 인류최초의 선각자이자 실천가다. 출가열반주간에 이 뜻을 기려 보다 많이 가진 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것을 다시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라는 종교를 통한 새로운 분배구조이다. 이것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라는 부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되살려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조계종에서는 1996년부터 이 기간을 '불교도경건주간'으로 정하고 자비나눔의 탁발행사와 같은 대사회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사찰에서는 이 시기를 용맹정진주간으로 정해 특별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고 실천하려는 종교다.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에 이르는 한 주간만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와 승단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행(聖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양한 수행·법피로 관심을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은 불교의 4대 명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것은 성도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이고, 성도 이후 깨달음을 완성한 것은 열반을 통해서다. 사실상 출가와 열반은 부처님 생애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와 불자들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명절로 삼고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은 잊고 사는 경향이 크다. 이는 현실의 구복만을 중시하는 세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

출가를 세속에서 떠나고, 열반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들의 감각에 깊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부처님이 오신 날은 감각적으로 당장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일선 사찰에서도 불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행 법회를 준비하고, 특히 출가제일을 맞아 범종단적인 단기출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기념일 연구 필요



부처님오신날, 즉 탄신일과 출가·성도·열반제일을 따로 보는 것은 대승불교권의 문화로 남방불교권에서는 이 4대 기념일을 웨삭데이라는 기념일로 하루에 지낸다. 이 웨삭데이는 대대적으로 이뤄지는데 그 이유는 3대·4대 기념일을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이 웨삭데이는 탄신일 행사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기념일에 대한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권에서는 다른 재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념일이 각 국가마다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불기를 비롯해 서로 다른 전적에 근거한 기념일과 같은 것들을 서로 논의해 전세계 불교계가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소통과 화합을 사상적 대안으로 품히는 불교다. 이제는 우리 불교계부터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